

황보수정 교수

민법 기본강의

■ 강의일정 2016년 3/15(화) ~ 4/30(토), 오전, 월~토 강의, 총 45 회(4회분은 추후 공지)
오전 9:00 ~ 12:40 (4일후부터는 8:40분부터 기출 OX시험)

1.(첫날 공개강의)

3/15일은 수업 끝나고 가시기 마시고 전날 상담하였던 일일 공부계획표와 개별 진도표를 받고 가셔야 합니다.

2.민법총칙(마지막 날 시험을 봅니다.)

3.물권법(마지막 날 시험을 봅니다.)

4.채권법(마지막 날 시험을 봅니다.)

*점수 상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2007,8,11년등에도 우리 반 꼴찌였던 학생들이었는데 시험을 빠지지 않고 보았고 생동차로 합격도 하였습니다. 정말 기본반 시험 점수는 상관없어요..

제55회 수석합격생도 3월 기본강의부터 마무리강의까지 빠짐없이 수강하였고 기본 강의부터 이렇게 치열하게 시험을 보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 공개특강 통합민법 마라톤 상담캠프

3월14일(월) 오전 10:00~12:00

제1부 “민법 제대로 알기”

(강사의 직접 상담을 통해 수험전반의 계획표를 짜드립니다. 최단기합격으로 가장 빨리 최고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민법커리큘럼, 최단기 합격방법, 효율적인 하루 시간통제, 의지와 각오를 다지는 알찬시간입니다.)

“통합 민법” 공부방법론

(①제대로 밑줄 긋기 ②제대로 단권화하기 ③제대로 기본서 3회독 정독하기)

미리 등록 하신분, 종합반 모두 오셔야 합니다.

예습용 동영상 강의 (인강)무료 제공하므로 미리 예습을 하실 분들은 이날 오셔야 합니다.

제2부 개별 마라톤 1:1상담 캠프

3월14일(월) 오후 1:00~밤까지 (1:1상담 모두 끝날때까지)

(간단한 자기 소개서를 써 오시기 바랍니다. 상담받고 싶은 모든걸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재든 계획표는 가지고 오시면 완벽하게 1년 스케줄을 잡아 드릴겁니다.)

■ 교 재 민법강의(김준호 저)

- + 통합민법 조문(저자)(실수강생 제공)
- + 교과서 옆에 붙이는 Post-it단권화자료(제공)
- + 심화 판례(제공)
- + 연습장(사례노트로 활용할 것이므로 약간 두꺼운 것)(필참)

■ 수강특전 1. 동영상 강의 (인강) 무료제공 (복습과 수업중 놓친 부분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하여)
*선 등록자는 미리 예습을 위하여 민법총칙부터 채권까지 차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복습용은 2016.3.17일이후부터 강의가 동영상으로 올라오니 그 이후 들으시면 됩니다.

2. 개별 수험생 상담과 매일 매일 출석체크로 45회동안 지속적인 학습의욕 고취

3. 질문받는 시간 확보

4. 김준호용 최초 예습용 색깔 밑줄 자료

5. Post-it 단권화자료

(예시) Post-it 모양으로 제공되므로 별도로 판례집이나 사례집을 보지 않고도 기본서에 모든 사항을 단권화하도록 도와 줍니다.

| p65. (김준호저 페이지 표시) | p603명의신탁자와 비교 | p350. |
|---|---|--|
| 의용 민법이나 구관습하에 태아에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상속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권리능력을 인정하였을 따름이므로 <u>채권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u> (대법원 1982.2.9. 선고 81다534) |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설정자는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로 양도담보권자 앞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그 부동산의 불법점유자인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불법점유의 상태의 배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1988.4.25. 선고 87다카 2696, 2697)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채권이 유효한 이상 채무자는 그 채무를 변제함이 없이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없다.(1970.9.17. 70다1250) |

p85 *2차용 (참고)

<관련문제>

(1) 시기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여부

무능력자의 사술이 위 요건들을 충족시킨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사기를 이유로 자기의 의사표시를 취소 (제 110조) 할 수 있으며 , 제 17 조와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따라서 상대방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도 있으며 , 제 17 조의 사술을 주장•입증하여 무능력자의 취소권을 배제시켜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 착오에 의한 취소와 관련해서는 동기의 착오 에 불과하거나 상대방의 중과실이 있다고 하여 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

만일 상대방이 사기를 이유로 자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무능력자측의 반환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 141 조 단서는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 이 경우에는 제 748 조 가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무능력자 보호 취지상 이 경우에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무능력자의 사술을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문제되는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무능력자의 사술을 이유로 취소권이 배제되고 , 그 결과 계약의 내용에 따라 무능력자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전부 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술로 인한 손해를 전부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은 무능력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6. 두문자 노트제공

7. 예쁜 글씨의 칠관 판서 노트 매일 제공

(수업시간에 놓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수업시간에 사례를 많이 하므로 나중에 사례노트로 활용합니다.)

■ 강의특징 [민법 완벽 단권화 강의]

보통 7,8월에 판례집을 보시게 되는데 민법은 기본서위주로 하시고 판례집은 참고하는 위주로 보셔야합니다. 강사들의 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서만 해도 2000페이지가 되는데 여기에 두꺼운 판례집, 강사의 기본서양에 버금가는 요약서들...10000페이지를 정리하시기엔 수험의 한정된 시간이 문제됩니다. 헌법,민법,형법 세과목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양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10년의 수험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이란 한정된 시간만이 여러분 앞에 있을 뿐입니다. . 따라서 **김준호책 빈칸에 이 책에 빠진 판례를 모조리 보완하여 한층 업그레이드(100P증가) 된 포스트잇으로 완벽 보완 할 것입니다.** 김준호저를 완벽 단권화시켜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김준호책에 빠진 논점,사례(노재호교안,송덕수사례집등을 모조리 보완하여 판례,사례 포스트잇으로 완벽 보완 할 것입니다.)**

■ 쪽지시험 매일 기출 복습 ox쪽지시험

매일 각종 기출복습지문 ox쪽지시험을 OMR작성하여 매일 통계를 냅니다. 매우 힘든 과정이지만 매일하신다면 좀 더 객관식에 자신감이 붙을 것입니다.(컴퓨터용 싸인펜 지참)

■ 강의특징

- ① 비법대, 민법초보자를 가장 단기간에 합격수준으로 만들어주는 강의
- ② 제55회 수석 합격생등 다수의 최단기합격생, 우수 합격생, 양시합격생들을 배출한 수험 적 합격 강사
- ③ 시험 직전까지 오로지 김준호기본서로 반복, 무한반복으로 양을 줄여주는 강의
- ④ 여자강사로서의 섬세한 설명과 수험생활의 따뜻한 배려
- ⑤ 2016년 각종시험에서도 입증된 꼼꼼한 강의, 빠짐없이 꼼꼼하면서도 핵심에 대한 강약이 있는 강의
- ⑥ 김준호저에 빠진 판례를 포스트잇으로 단권화하여 기본서와 연계된 판례정리

■ 이용방법

민법을 처음공부는 분이시더라도 힘들지만 기출문제풀이까지 모두 수행하셔야 조기합격이 가능합니다. 신림동 강사를 매일 과외선생처럼 활용하셔서 초단기합격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험을 잘 못 보신 분들이라도 호지부지 3~4월 시간을 보내시면 안되고, 본인의 민법 실력을 너무 과신하여 항상 뒤늦게 시작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오히려 그 점이 장수생이 되는 일입니다. 다시 겸허하게 기본강의부터 해나가실 때 김준호책이 예전과 달리 보이고, 아는 만큼 새롭게 강의내용이 들릴 것입니다.

특히 제 강의는 3월에 함께 통합민법책을 만들고 두문자를 암기해놓지 않으면 중간에 듣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새로운 각오로 2배가량 늘어난 포스트잇, 새로운 쟁점밀줄로 열정을 다해 강의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 강의방향 난이도

『김준호 민법 강의 2016년 신판』

- 1.민법의 기본개념을 쉽게 설명하여 초학자들의 법학적 사고 형성
- 2.기본서의 정확한 이해와 조문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례 설명
- 3.중요사항을 반복 이해시켜 주는 강좌
- 4.최신판례, 암기사항, 중요사항 완벽 단권화
- 5.마지막 날 시험을 봄으로써 학습의욕 고취

민법 고득점의 비결은 기본서의 정확한 이해와 가장 기본 되는 사항의 확실한 암기입니다. 쉽고 재미있게 기억되는 민법강좌 여러 번 학원 강의를 들어도 민법의 틀을 잡지 못하시는 입문자들을 위한 초급에서 고급으로 끌어올리는 강의.

■ 강의방식

1. 먼저 쟁점이 되는 부분을 쉽고 재미있게 사례로 설명 드립니다.(칠판판서 사례내용을 적기 위해 노트를 준비해 오십시오.)
2. 먼저 보았던 사례를 조문으로 1회독 하여 유기적으로 조문 찾는 법을 알려드립니다.(시험 장용 법전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3. 강사 책이 아닌 정통 김준호교수님 기본서로 미리 단권화 시킨 중요사항을 점검합니다.(단권화 작업을 통해 밑줄이 미리 그어져 있으므로 수업시간 중에는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4. 최근 각종 시험경향에 대비하여 전합판 판례를 비롯하여 중요 판례는 사실관계까지 사례화 하여 봅니다.

■ 공부방법

초학자분들은 민법1순환 기본강의를 들으시면서 복습시 기본서1회독(이때는 꼼꼼히 읽으셔야 합니다.)을 먼저 하신 후 반드시 기출문제를 푸셔야합니다.(기출문제집은 사시,번시, 변리사등 다양한 시험이 수록된것이 좋습니다.)그리고 다시 기본서를 보십시오. 이때 교과서가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만약 영어가 패스되신 분이라면 다시 오엑스집을 푸시고, 기본서3회독을 하셔야합니다.

■ 단권화 방법과 밑줄의 의미

객관식을 위한 밑줄

- 1순위.오렌지색형광펜 : 가장 중요한 지문,빈출 판례
- 2순위.노랑색형광펜 : 중요지문, 초록색형광펜 :보야할 판례
- 3순위.검정볼펜
- 4순위.연필

주관식을 위한 밑줄

- 1.쟁점처리(문제의 소재):빨강격쇠
- 2.학설의 대립처리
다수설: 파랑색볼펜
소수설: 하늘색볼펜
- 3.판례의 처리 :공통(초록)

■ 드리는 말씀

수험 공부는 보통 1~3년은 되어야 합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 해 올해가 합격의 해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미친듯이 달려가야 그나마 가능합니다. 처음 시험을 보시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열정 잊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한번 시작한 방법을 자주 바꾸고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방법론에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처음 시작할 때 신중하게 하시고 중도에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끝나고 과분할 정도로 많은 분들의 전화와 문자,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늘 성실하게 공부하셔서 제가 그분들의 1차합격 때의 민법강사였기에 그 칭찬이 제몫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원래 합격때 강사가 제일 잘 가르친걸로 생각되지요. 이번 강의의 여러분들도 반드시 합격하셔서 그 기쁨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편지 신기 민망하지만 항상 곁에 두시고 합격의 기를 받으세요.

합격수기1 .

신OO 제55회 사법시험 수석

I. 서론

2차시험을 다 치루고 나서 여러 가지 누락한 쟁점들이 생각나서 합격을 예상하지 못한 채, 저의 미래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합격이라는 큰 선물이 저에게 주어져서 기

뿐면서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수석이라는 사실을 듣고 이것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에게 너무나 과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수기를 쓴다는 생각을 한번도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써야하는지 잘 몰라 막막하기도 합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라도 되어보고자 저의 수험생활을 돌이켜보려 합니다.

II. 1차 준비기간

1. 진도별 모의고사 전까지의 수험생활

사법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것은 2011년 3월부터였습니다. 저는 기본서로는 교수의 민법 강의를 선택하였고, 강의는 **황보수정 강사**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때에는 강의를 들으며 해당 법조문의 내용을 수회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습에 집중하였고, 그 날 배운 진도에 따라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특히, 틀린 문제나 헛갈렸던 문제들은 그 내용이 회미해질 때 즈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투리 시간마다 방대한 민법의 내용을 연결하기 위해 처음부터 배운데까지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읽으며 저 자신만의 민법의 체계를 잡아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편지1

이번에 생동차로 붙었습니다^^

주위사람들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 ㅎㅎ 쌤 저 민법땀에 붙었어요. 2차 침 보는데 민법이 80이 넘었거든요.

쌤이 기본강의 민총 끝나고 시험보시고 매번 시험보실 때... 저 그다지 성적이 안 좋았는데.. 그래두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었습니다. 이번에 후배들이 단권화된 민법책 달라고 난리났는데... 절대 줄 수 없죠.

.....

쌤 덕분 인거 같아 감사드려요....

편지2 .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1차시험 끝나고 선생님뵈려갔던..그 때 맞난 떡볶이 사주셨잖아요. 항상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열정적인 강의가 눈에 선하네요.

그때하신 선생님의 잔소리가 그리워지기도 하는 요즘이네요..

2차 1순환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조언좀 해주세요

스터디에 관련해서요. 스터디를 꼭 해야할지 요즘 걱정입니다..

편지3 .

작년 1차시험을 끝나고 우연히 선생님 강의를 듣고 감동받아

팬이 되었습니다.

그때 늦게나마 만난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진솔한 선생님의 모습에 반했습니다^^

.....

그래서 의기소침 하고 있던차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

필~~을 받았다고 할까요? ㅋㅋ 암튼 좋았습니다.

선생님.....

후사법 강의나 교재에 대해서 잘모르겠습니다.

강의나 교재도 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지4 .올 해 시험직후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던 박OO입니다.기억하세요?

..... 짧은 시간 공부였음에도 선생님 강의를 통해 민법과목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 민법 4개 틀렸어요.선생님도 기쁘시죠?
사실 강의를 들으면서 꼭 1차 합격후에 선생님을 찾아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어떠신가 해서 메일 보내요.

편지5.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름은 김OO이구요.

동영상으로 밀줄강의랑 가족법 들어서 선생님이 너무 친숙하게느껴졌었습니다. 마치 친언니같은 느낌... 민법 모강따라갈 때는 남자친구가 질투할 정도로....

맨날 방에 틀어박혀서 혼자 공부했다가 민법이란 선택과목을 망쳤었구요.70점대 받았었거든요. 공부 방법이

완전 잘못됐었다는 걸 깨닫고 답 시험에는 꼭 학원에 다니리라 생각했는데...

작년에 시험보기 2주 쯤 전, 시간이 없어서 아무거나 전범위 모강문제집 사다달라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한림법학원 문제를 사오셨는데 테입을 같이 사오셨더라고요.. 그런 건 필요 없는 데 뭐하러 사오셨냐고 하다가.. 문제 풀다 의문나는 게 있어서 그냥 한 번 들어봤었어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 강의 부분이었나봐요. 여자강사인데 이게 누군가.. 하면서 들었는데 너무 시원시원한거예요. 사시 민법 강의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생각했었습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싶었지만 이미 2주도 안남은 상황이어서 어찌 커버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는 민법 때문에

떨어지고. 이번에 시험 준비는 민법은 반드시 선생님 강의 들으리라 다짐하고 있었고, 밀줄강의로 같이 따라 가니까 책이 만들어져서 괜찮더라고요.^^강의를들으면서 작년 시험 완패 요인이 뭔지를 정확히 알았구요.. 무엇보다도, 민법 때문에 번번이 좌절했었는데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많 이... 12월 말 핵심체크강의도 꼭 직접 들으려했는데 몸이 안좋아서 학원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민법 공부시간 줄여주셔서 감사해요. 특히 손으로 쓰신 그 자료!!!! 다 다운 받아서 프린트했는데, 정말 감동 또 감동이었어요. 힘드셨을 텐데..아무리 돈 받고 강의한다지만 어떤 강사가 학생들 위해 책을, 것도 민법책을 손으로 베껴 써 주겠어요.. 모든 정성을 쏟아부으셨구나 싶었습니다.

가족법은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작년에 틀린 게 다 조문이라, 앞뒤 살펴가며 미친 듯이 봤더니

이번 시험에 적중했던 거 같아요.

어제 시험문제 풀 때도 속으로 '황보수정선생님 감사합니다'를 몇번이나 했는지...^^

물론 중간중간에 그리고 막판 되면서 불안해지는 시점이 있었지만, 될거라고 굳게 믿고, 특히 민법은 알려주신 방법으로 주욱 밀고 나갔더니, 형법이 좀 빠듯하긴 했어도 평균 91.XX가 되더라고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민법 95점'이었지요.

한번쯤은 선생님께 메일을 써야겠다.. 생각했었는데 그 시간마저도 다 투자하고 시험본 후에 쓰기로 마음먹었었어요..

어제 시험 보고는 얼굴이 환하니까 남자친구가 '오~~황보수정효과가 있었나봐?'하더군요.

제가 그랬죠, 완전 적중이라고^^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구요.. 그 정성 잊지 않을게요.

또 미친듯이 달려야겠지만, 어차피 학원 또 다닐 테니까 선생님 얼굴 뵈수 있었음 좋겠어요.

강의 들을 수 있음 더 좋구요.^^ 복 많이 받으시구, 건강하세요~*

편지6 .

선생님의 강의를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동영상으로 들으면서 팬이 되었습니다.

이런 메일 많이 받으시겠지만,

오늘 발표가 나고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공부하는 동안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말씀대로, '기'를 받는 느낌이었기에... 상담을 좀 하려구요.^.....

친구들이 저를 황보수정매니아라고 합니다. 정말 수험기간동안 정신적으로 많은 힘이 되어주셨고, 공부방법과 민법실력 향상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두서없는 편지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7 .

이번에 겨우 1차를 붙었습니다^^

올해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공부를 못했거든요,,떨어질꺼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합격자명단에 제 이름이 있어서 너무 놀라고...행복했습니다^^

작년에 선생님한테 1차떨어지고 멜을 보냈는데...

답멜을 보고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 선생님강의를 계속 듣고 민법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민법86점^^;맞고 ..민법덕분에 겨우 합격했답니다

90넘었으면 좋았을텐데...아직 민법공부가 많이 모자른거같아요

근데 제가 워낙 혼자 공부하나보니...2차를 막상준비하려고해도 정보가 거의 없어서..

너무 막막하더라구요

선생님이 예전엔 2차 민법강의를 하셔서 ,,합격하면 꼭 들겠다했는데..

요새는 안하시더라구요 너무 아쉬워요 ㅏ ㅏ

강의시간에 2차공부방법도 많이 알려주시고하셔서,,,좋았거든요(2차샘플강의 들어봤거든요^^;)

.....항상 행복하세요 선생님 ^^